



이 작품은 전통적인 한국 회화 기법인 '묵화'의 정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다. 화면은 거의 완전히 검은색으로 채워져 있으며, 그 속에서 미세하게 드러나는 선과 형태는 마치 물결이나 연기처럼 흐릿하게 표현되어 있다. 이는 자연의 섭리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며, 관람자에게 깊은 사유를 유도한다. <물결의 소리>는 작가가 오랜 시간 동안 관찰하고 느낀 자연의 리듬을 캔버스에 담아낸 결과물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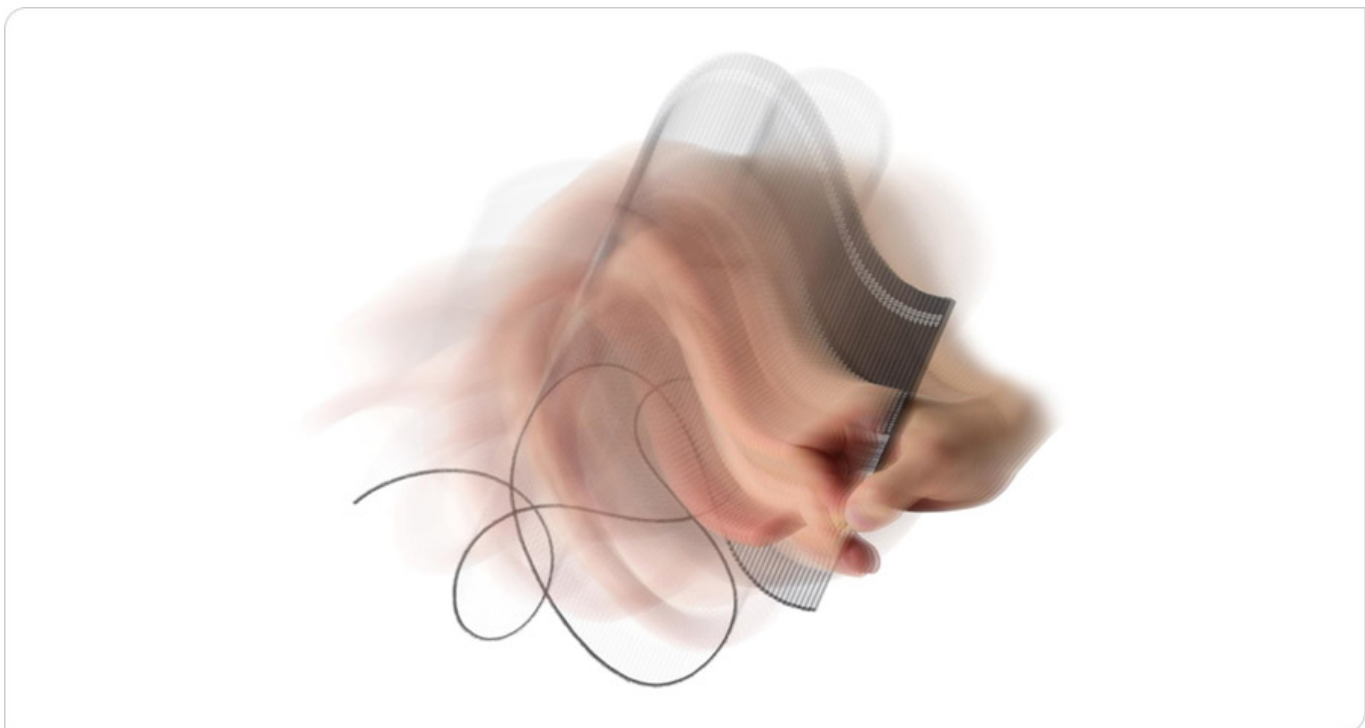
전통적인 한국 회화에서 '묵'은 단순한 색채가 아닌, 정신의 깊이를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였다. 이 작품은 그러한 전통을 계승하면서도, 현대적인 감각과 기법을 접목하여 새로운 미학을 창조해냈다. 특히, 빛과 그림자의 대비를 극대화하여 공간감과 질감을 강조하는 방식은 인상주의와 추상주의의 영향을 받기도 했다. 이 작품은 단순한 형태와 색채를 넘어, 자연의 본질을 탐구하는 철학적인 접근을 보여준다.



<물결의 소리\_70x90cm\_한국화 2015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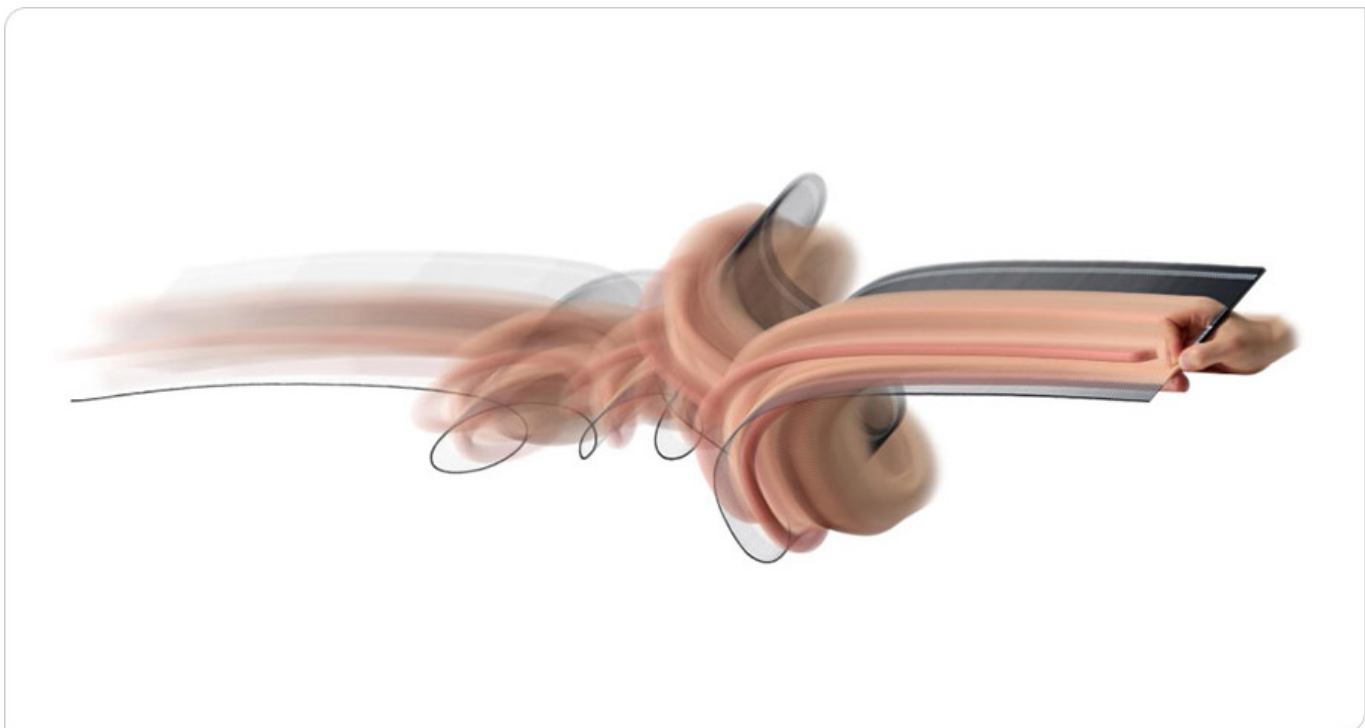
<□□□□□□□□\_49×17×43cm\_PVC, □□\_2015>



<□□□-□□□□□□□□\_85×100cm\_□□□□ □□□\_2015>



<□□□-□□□□□□□□\_95×115cm\_□□□□ □□□\_2015>



<□□□-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\_120×360cm\_□□□□ □□□\_2015>

□□□□

